

전남문화재단, 메가 브랜드 뮤지컬 본격 제작

창립 15주년 행사 28일 남도소리울림터 '함께 여는 미래, 문화로 소통·공감' 비전 남도의 섬·민속 대서사 담은 브랜드 공연 지원사업·미술시장 활성화 지역소멸극복 마한 역사 연계 학술·관광 프로그램 다양

전남문화재단이 오는 28일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창립 15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가운데 브랜드 뮤지컬 공연 제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문화재단 임직원 공모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15주년, 함께 한 문화의 여정을 기억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기념행사에서 재단은 함께 한 1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재단의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 활동을 시작해 미국 버클리 음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트포' 그룹과 '무안군 청년 협의회' 등 재단과 함께 성장한 젊은 예술가들의 축하공연, 문화기획자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축하영상, 우수 직원 시상과 대표이사 비전선언 등이 진행된다.

2부는 나눔·화합행사로 영암 기찬랜드에서 '소외 계층 어린이 선물꾸러미'를 제작해 굿네이버스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재단의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십순잔치 축하행사와 직원 간 소통·공감·퀴즈쇼 등 재단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12월 뮤지컬 시범공연 목표

전남문화재단은 전남 대표 브랜드 뮤지컬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브랜드 뮤지컬은 전남의 섬, 국가무형문화재(씻김굿, 들노래, 다시래기, 강강술래 등) 및 민속문화(산다이, 밤다래, 발광대놀이, 화전놀이 등) 등 연희와 남도의 땅이 상징하는 큰 모성을 결합한 대서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그동안

안 브랜드 뮤지컬 제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컨설팅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뮤지컬 예술감독, 문화재전문가, 남도민속학자, 뮤지컬 평론가, 제작·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남 브랜드 뮤지컬 제작 자문회의'를 거쳐 중장기 제작 로드맵을 설계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올해 상반기에 뮤지컬 제작을 위한 제작사 공모, 선정 후 작가, 작곡, 의상, 무대디자인, 연출진을 구성한다. 12월 중에는 수도권과 도내 일원에서 제작발표회 형식의 시범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역소멸 극복, 청년문화기획자 집중 지원

재단은 지역소멸, 환경문제, 빈집,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 이슈를 청년들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가는 '2024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 활동가를 모집, 15명을 최종 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프로젝트 지원금(300만원)과 월 활동비 160만원을 5개월간 지원 받는다. 이 외에도 지난 2월 지역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가 24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에게 각 1000만원 지원 등 총 1억4800만원을 투입, 창작기회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전남 청년예술인에게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윈스톱 창작지원 프로젝트'

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여수 엑스포 국제관을 거점으로 '전남문화재단 갤러리 까멜리아 여수'를 오픈, 전시회를 시작했다. 오는 7월부터 전남 청년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유통 거점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레지던시 운영을 위한 입주 작가 모집과 분기별 전시회 개최를 이어갈 계획이다.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마쳤다. 공모결과 총 1076건이 접수되어 심의를 거쳐 336건이 최종 선정되어 연내 총 17억8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공연장 활성화 사업 등 내용은 다양하다.

재단의 전남작가 지원을 통한 미술작품 유통 및 미술시장 진출 성과도 눈부시다. 지난해 재단은 남도예술은행 사업을 통해 전남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프랑스 파리, 서울 아트쇼, 인천 아시아아트페어, 서울옥션 제로베이스 경매 등에 선보이며 총 매출액 2억원 이상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전남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중국 상하이, 서울, 대구 등 국제 아트페어에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하고 서울 옥션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최태성·심용환스타역사강사 특강으로 마한사 알리기 주력

전남 도내 마한유적의 중요성이 규명된 것을 계기로 국가·도 지정 관련 기초연구와 학술대회가 6월 14일(함평)과 27일(신안)에 대대적으로 열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함평 금산리 방대형고분과 신안 안좌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 승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마한유적의 세계 유산 등재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포럼도 계획됐다.

마한문화와 지역 특화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마한 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성과 전시회 등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해 추진한다. 특히 마한사를 우리 지역의 역사로서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최태성·심용환 등 스타역사강사의 '어?마한이야기!' 특강을 통해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마한역사 알리기 붐을 조성한다. 특강은 지난 17일 시작하여 11월까지 여섯 차례 목포, 영암, 신안 등에서 이어진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창립 15년인 올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뜻깊은 한해다"며 "재단은 지역문화자원과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총집결해 우리들의 최종 목표인 '전라남도' 자체가 문화예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피, 땀, 수고, 눈물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9월 개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 모집

내달 18일까지 거리극 등 공모 특별한 만남 등 주제 15개 작품

광주문화재단은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무대에 나설 국내 거리예술 작품 공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올 9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되는 2024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거리예술 축제' 무대를 위해, 공공 공간에서 상연 가능한 작품을 보유하거나 창작하고 있는 국내 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작품을 신청받는다.

분야는 거리극, 무용, 융복합 예술, 참여형 공연 등 거리에서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예술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작품이 선정되면 추후 협상을 통해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 관련 부대시설, 공연홍보, 국내외 축제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년도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슬로건은 '어쩌다 마주친...'으로 주제는 '광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다시 마주하는 만남의 광장'이다.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거리예술을 통해 개인들의 이야기가 예술이 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프린지 페스티벌만의 특별한 '만남의 광

장'을 연출한다는 의도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러한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다린다. 서심심사로 진행되는 선별 과정에서는 '축제의 부합성', '작품성 및 예술성', '지원자의 수행 역량' 등을 기준으로 최종 15개 내외의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 오후 5시까지 전자메일(yugah@gjcf.or.kr)을 통해 가능하다.

재단은 6월 26일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6월 28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신혜원 예술감독은 "광주에서 울리는 일상의 소리를 듣고 채집해 거리예술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익숙한 공간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광주를 통해 다양한 시선들이 교차하는 '특별한 만남의 광장'을 재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24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은, '거리예술축제'를 9월 21~22일에 광주비엔날레 일대와 금남로에서, '스트릿댄스축제'를 9월 28~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나눠 진행된다. 작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의 예술과 삶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 29일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의 분관 하정웅미술관은 '2024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3회차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영화 '르누아르'를 상영한다.

이번 강의는 프랑스의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를 다룬 '르누아르'를 함께 보고, 상영 후에는 르누아르의 그림 30여 점에 대한 감상과 설명이 이어진다. 르누아르는 가난한 양복점 아들로 태어나 13세부터 도자기공장에서 커피잔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며 색채를 익혔고, 루브르미술관에 전시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그림 공부를 했다. 이후 오귀스트 르누아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가 된다.

영화는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가 74세이던 1915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무렵의 프랑스 리비에라 지방의 여름



날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는 화가의 집과 작업실을 중심으로 함께 기거하는 사람들과 모델 '데데' 그리고 후에 아버지 못지 않은 유명 감독이 된 아들 장 르누아르를 중심으로 그들의 예술과 인생의 한 꼭짓

점을 보여 준다.

'하정웅미술관' 예술영화 강의를 진행하는 영화평론가 조대영은 지난 수년간 하정웅미술관 영화상영회를 도맡아 왔으며, 광주를 중심으로 영화 상영회 및 감상회를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조대영 평론가는 1991년 방위병 시절 영화동아리 '굿벨라스'를 조직해 활동한 것이 영화와 깊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고 90년대 중후반 수십여 차례의 영화상영회와 영화 강좌를 개최했다. 2007년에는 개관 멤버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일했고, 2012년부터 광주독립영화제를 10년간 이끔다. 현재는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디렉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은 저서로는 영화평을 묶어낸 '영화, 룩다'가 있다.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예약 없이 선착순 방문제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농성동에 위치한 하정웅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도선인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